



유서 깊은 세 가지 컬러: 제니스, 블랙 컬러의 삼색 다이얼이 장착된 CHRONOMASTER ORIGINAL 을 선보이다

1969년 라운드 케이스와 스틸 소재로 선보인 최초의 엘 프리메로 레퍼런스 중 하나인 제니스 A386를 계승한 Chronomaster Original 이 유서 깊은 1969년의 케이스에 아이코닉한 블랙 컬러의 삼색 다이얼을 더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0.1 초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춘 최신 세대의 엘 프리메로 고진동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및 블랙 컬러의 삼색 다이얼로 완성된 Chronomaster Original 은 가장 상징적인 엘 프리메로 레퍼런스를 지극히 모던하게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엘 프리메로 고유의 매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디테일을 반전해 선보이는 Chronomaster Original 라인의 신제품은 그레이, 블루 컬러의 3 가지 카운터가 돋보이는 기존의 크림 화이트 컬러 다이얼을 블랙 컬러로 재해석해 극적인 매력을 선사합니다. 이는 1969년 A386의 오리지널 디자인 속 38mm 스틸 케이스에 등장하는 블랙 컬러의 삼색 다이얼을 기념하는 첫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화이트 및 블랙 컬러의 삼색 다이얼이 돋보이는 Chronomaster Sport 라인과 마찬가지로 Chronomaster Original 라인 또한 이제 역사적인 화이트 컬러의 삼색 다이얼, 그리고 보다 대담하고 모던한 블랙 컬러의 삼색 다이얼로 더욱 풍성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모델은 베이스에 블랙 컬러를 적용한 만큼 4시 30분 방향의 사다리꼴 표시창에 자리한 날짜 휠과 0.1 초 및 10 초 크로노그래프 스케일 등의 디테일 또한 화이트에서 블랙으로, 혹은 블랙에서 화이트 컬러로 변경해 완성되었습니다.

Chronomaster Original 은 A386 특유의 디자인과 다양한 스케일을 고스란히 간직함과 동시에 디자인 속에 0.1 초 크로노그래프를 완벽하게 통합했습니다. 다른 크로노그래프와는 달리 Chronomaster Original 에는 10 초만에 다이얼을 한 바퀴 회전하는 레드 센트럴 크로노그래프 세컨드 핸드 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0.1 초씩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크로노그래프 핸드를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정밀한 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과거 1969년에 선보였던 모델의 전체적인 실루엣과 비율을 고스란히 재현한 Chronomaster Original 은 베젤이 없는 38mm 스틸 케이스와 돌출 및 동형 크리스탈로 완성되었습니다. 펌프 스타일 크로노그래프 푸시 버튼, 각면 처리된 러그, 전체에 방사형 브러싱 및 폴리싱 처리한 표면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은 과거와 현재의 모델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스틸 브레이슬릿은 1969년의 오픈형 "래더" 디자인을 견고한 링크로 대체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기계식 크로노그래프의 발자취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지 5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제니스는 계속해서 엘 프리메로 칼리버를 개발하고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니스의 업적은 여전히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분야에서 정밀성의 기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Chronomaster Original 에는 엘 프리메로 칼리버의 최신 버전인 엘 프리메로 3600이 탑재되며, 5Hz의 고진동(시간당 36,000회) 무브먼트는 0.1 초까지 완벽하게 표시합니다. 여기에 60시간으로 늘어난 파워 리저브가 더욱 뛰어난 자율성을 선사하고, 사파이어 디스플레이 백을 통해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모던한 무브먼트는 유려하고 개방적인 디자인으로 블루 컬러 휠과 제니스 스타 모티브가 장식된 오픈 로터의 매력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블랙 컬러의 삼색 다이얼을 탑재한 Chronomaster Original 은 해당 컬렉션의 상시 판매 제품으로, 전 세계 제니스 부티크 및 공식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니스: 꿈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 자리 잡았으며,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 비행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Louis Blériot)부터 성층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제니스는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드림허스(DREAMHERS) 플랫폼을 마련해 선구적인 여성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제니스는 1969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를 출시했으며, 계속해서 0.1 초까지 측정 가능한 Chronomaster 컬렉션과 0.01 초의 정밀성을 갖춘 DEFY 컬렉션을 통해 정밀한 고진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 측정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혁신은 곧 책임을 의미합니다. 제니스 HORIZON 이니셔티브는 포용성과 다양성, 지속 가능성, 직원의 복리 후생이라는 세 가지 헌신을 약속합니다. 제니스는 1865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차원을 향한 열정적인 도전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꿈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

CHRONOMASTER ORIGINAL

레퍼런스: 03.3200.3600/22.M3200

핵심 사항: 0.1초까지 측정 및 표시할 수 있는 오토매틱 엘 프리메로 컬럼 휠 크로노그래프. 60시간으로 늘어난 파워 리저브. 4시 30분 방향에 위치한 날짜 표시창. 스톱 세컨드 메커니즘.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3600

진동수 시간당 36,000회 - 5Hz

파워 리저브: 60시간

기능: 중앙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즈. 9시 방향에 위치한 스몰 세컨즈. 0.1초 크로노그래프: 10초에 1회 회전하는 센트럴 크로노그래프 핸드, 6시 방향에 위치한 60분 카운터, 3시 방향에 위치한 60초 카운터.

마감: 새로운 별 모양 로터 및 새틴 마감

가격: 9,900 스위스 프랑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방수: 5ATM

케이스: 38mm

크리스탈: 양면에 반사 방지 처리한 돔형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다이얼: 블랙 매트 다이얼, 세 가지 컬러의 카운터

아워 마커: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핸즈: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브레이슬릿 & 버클: 폴딩 버클이 장착된 메탈 브레이슬릿.



CHRONOMASTER ORIGINAL

레퍼런스: 03.3200.3600/22.C908

핵심 사항: 0.1초까지 측정 및 표시할 수 있는 오토매틱 엘 프리메로 컬럼 휠 크로노그래프. 60시간으로 늘어난 파워 리저브. 4시 30분 방향에 위치한 날짜 표시창. 스톱 세컨드 메커니즘.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3600

진동수 시간당 36,000회 - 5Hz

파워 리저브: 60시간

기능: 중앙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즈. 9시 방향에 위치한 스몰 세컨즈. 0.1초 크로노그래프: 10초에 1회 회전하는 센트럴 크로노그래프 핸드, 6시 방향에 위치한 60분 카운터, 3시 방향에 위치한 60초 카운터.

마감: 새로운 별 모양 로터 및 새틴 마감

가격: 9,400 스위스 프랑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방수: 5ATM

케이스: 38mm

크리스탈: 양면에 반사 방지 처리한 돔형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다이얼: 블랙 매트 다이얼, 세 가지 컬러의 카운터

아워 마커: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핸즈: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브레이슬릿 & 버클: 폴딩 버클이 장착된 송아지 가죽

